

무역상무연구
제75권
2017. 8, pp. 179~198.

논문접수일 2017. 07. 31.
심사완료일 2017. 08. 17.
게재확정일 2017. 08. 18.

농업수출과 비관세장벽, 글로벌가치사슬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박근호**

-
- I. 서 언
 - II. 농업 수출 현황
 - III. 농업과 비관세장벽
 - IV. 농업분야 비관세장벽과 가치사슬
 - V. 결 언
-

주제어 : 농업 수출, 비관세장벽, 글로벌가치사슬

I. 서 언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2016년에는 64.7억달러를 달성하였다.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부문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시장다각화 및 농촌부문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농업분야의 품질기준과 경쟁우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FTA체결 확대에 의한 기업 간 경쟁 증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강남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한 것임.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부교수, E-Mail : khpark@kangnam.ac.kr

홍시장 내 저비용 공급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전략의 변화 등의 인한 글로벌경영환경의 변화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있고, 향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글로벌한 무역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¹⁾ 이는 농업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된 환경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은 글로벌가치사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다수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수출 등 글로벌경영전략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FTA는 무역장벽을 완화해주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적절한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Global 무역환경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각국이 낮아지는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비관세장벽들을 교묘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글로벌경제침체상황에서는 각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낮은 관세 대신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 전 10%수준에서 10년 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무역상 기술장벽)의 경우에는, 최근 WTO TBT 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 전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 전에는 800여건, 그리고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비관세장벽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WTO, FTA 등을 통해 관세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장벽들이 지속되는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의 수출기업들 역시 이러한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국내 농업분야 수출기업들의 글로벌가치사슬 진입촉진을 위해서 글로벌가치사슬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수출분야의 연구들이나 비관세장벽관련 연구들 중에서 글로벌가치사슬관점에서 접근한 통합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농가 및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글로벌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에 대

1) OECD,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2013(http://www.oecd.org/sti/ind/Trade_Policy_Implications_May_2013.pdf).

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를 통하여 우리 농업분야의 수출현황과 수출증대의 필요성, 농업수출부문의 비관세장벽의 현황, 농업부문의 비관세장벽이 농업의 가치사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농업 수출 현황

1. 우리나라 농업 및 수출현황

2015년 우리나라 농림업생산액은 총46조9천억, 농림업 부가가치는 29조7천억으로서 국내 총부가가치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업 생산액은 2014년 47조 3천억원에서 2015년 46조 9천억으로 0.8%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014년 28조 6천억원에서 2015년 29조 6천억으로 3.7% 증가하였다(표1).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총부가가치비중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2010년 기준 2.4%로서 일본 1.2%, 미국 1.1%, 영국 0.6%, 프랑스 1.6%에 비하여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한다.2)

<표 1>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십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업 생산액	35,837	39,663	42,995	43,523	43,214	46,357	46,648	47,292	46,890
- 쌀 비중	21.9	23.6	20.2	15.6	18.5	17.5	18.3	17.2	16.4
- 원예업 비중	31.3	28	27.7	29.4	30.1	31.7	31	-	-
- 축산업 비중	31.5	34.3	38.3	40.2	34.7	34.6	34.8	39.4	40.8
농림업 부가가치	23,257	22,587	23,540	24,872	26,035	26,663	27,376	28,562	29,625
총부가가치 비중	2.5	2.3	2.3	2.2	2.2	2.2	2.1	2.1	2.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6.

2) e-나라지표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부가가치 비중, 2017.

2016년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64.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하였다. 국가 전체 산업 수출액이 2015년에 전년 대비 7.9% 감소하고, '16년에 전년대비 5.9%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농업부문의 수출액 증가는 고무할 만한 일이다. 2007년 25.3억달러를 기준으로 농업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1.0%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수출액의 연평균성장률 3.3%와, 농림업생산액의 연평균성장률 3.4%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농업부문의 경쟁력 증가와 향후 수출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식품분야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아직 1% 수준대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표 2).

<표 2> 농업 수출액 및 비중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수출	371,489	422,007	363,534	466,384	555,214	547,870	559,632	572,665	526,757	495,426
농업수출	2,532	3,049	3,299	4,082	5,383	5,645	5,725	6,183	6,104	6,465
비중	0.68	0.72	0.91	0.88	0.97	1.03	1.02	1.08	1.16	1.30

* 주 : 농식품 수출비중의 구성은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포함한 금액임.

* 자료 :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TI) 자료 참고.

한편,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농업부문에서의 무역수지적자는 232.1억달러에 상당하고 있다(표 3).

<표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소계	2,532	3,049	3,299	4,082	5,383	5,645	5,725	6,183	6,104	6,465
	농산물	2,223	2,715	2,991	3,722	4,941	4,785	4,741	5,224	5,220	5,581
	축산물	181	215	140	146	176	395	436	470	497	458
	임산물	128	119	168	214	266	465	548	489	387	425
수입	소계	16,182	20,121	18,347	22,330	28,994	29,448	30,300	31,635	30,126	29,673
	농산물	10,089	13,905	11,754	13,988	18,362	18,717	19,106	19,308	17,901	17,666
	축산물	3,235	3,352	2,485	3,123	5,071	4,721	4,688	5,622	5,728	5,807
	임산물	2,858	2,864	4,108	5,219	5,561	6,010	6,506	6,704	6,591	6,200
무역수지		-13,650	-17,072	-15,048	-18,248	-23,611	-23,803	-24,575	-25,453	-24,018	-23,208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TI) 자료 참고.

지난 10여년간 농산물 수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내수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출물량이 유동적이 되어 수출시장에서 발생하는 신뢰저하의 문제, 현재의 농산물 수출이 상당한 부분 수출물류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의 수출물류비 지원 철폐에 대한 합의가 시행될 때 받게 될 영향,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해외교민위주의 수출시장 특성, 한류열풍에 기인한 현지인들의 농산물소비증가의 유행성 등은 농산물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구조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³⁾

III. 농업과 비관세장벽

1. 농업부문 글로벌 무역 환경

2015년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 10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 분야의 공정한 수출경쟁을 위해 농산물수출보조금 철폐와 개발 등 일부 의제에서 합의하는 등 최소한의 성과(소위 나이로비 패키지)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DDA 협상의 전개방향을 가늠할 DDA 지속 여부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주장을 나란히 병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DDA 협상은 실질적 진전이 없이 2017년 12월로 예정된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준비과정으로 성과 도출 가능한 의제의 타진 수준에 머무르는 등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DDA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실질적으로는 의제 안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다.⁴⁾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즉시 폐지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2023년까지 마케팅비나 수출물류 보조 또한 폐지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2018년까지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되,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말까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수출 신용이나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자유화가 주로 관세철폐에 중점

3) 이상현 외,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p. 2.

4) 서진교 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 20.

을 두어왔기 때문에, 관세하락에 따른 시장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각 국가들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다양한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나 규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WTO/DDA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외에도 1995년 WTO 출범 이후 2개국 이상의 상호무역협정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지역무역협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 4>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017년 7월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5건)	칠레	2004년 4월 발효	최초 FTA, 중남미시장교두보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상품무역협정(2007년 6월), 서비스협정(2009년 5월) 투자협정(2009년 9월) 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 FTA
	인도	2010년 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2011년 7월 잠정, 2015년 12월 전체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2011년 8월 1일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12년 3월 15일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2013년 5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발효, * 서비스·투자 협정 미발효: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년 12월 발효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캐나다	2015년 1월 발효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5년 12월 발효	제1위 교역대상 (2015년 기준)
	뉴질랜드	2015년 12월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년 12월 발효	제3위 투자대상국 (2015년 기준)
	콜롬비아	2016년 7월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타결 (1건)	중미(6개국)	2017년 3월 가서명	중미 신시장 창출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진행 (4건)	한중일	2012년 11월 협상개시, 총 17차례협상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2012년 11월 협상개시, 총 19차례협상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2015년 8월 협상개시, 총 5차례협상	자원부국, 중남미시장 진출교두보
	이스라엘	2016년 협상개시, 총 5차례협상	창조경제 모델국가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fta.go.kr>) 참조.

2016년 6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24건이며, 이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2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24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3%에 해당하는 37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한국은 2003년 2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해온 결과 2017년 7월 현재 16차례(15건 발효, 1건 타결)에 걸쳐 전 세계 60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협상진행 중인 국가 및 지역도 4건이 되고 있다(표 4).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주요 거대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는 등 가장 광범위하게 FTA를 활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2. 비관세장벽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NTM)는 상품의 국제 교역, 교역량의 변화 또는 가격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수단으로 정의된다.⁶⁾ 한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지칭한다.

비관세장벽은 범위가 넓고 종류도 다양하다. WTO의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별개의 협정만 해도 원산지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협정,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식품위생 관련 협정 등이 있다.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비관세장벽으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WTO는 동식물 검역 및 위생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2017.07.20. 최종방문.

6) UNCTAD, *Guidelines to Collect Data an Official Non-Tariff Measures*, 2016, p. 2.

절차에 관한 협정),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공중도덕 보호조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조치, 유한 천연자원 보존 조치, 공급 부족산품의 획득 등)의 협정문을 통하여 국제무역의 비관세조치를 관장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비관세조치를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관련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특히 비관세장벽을 6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체계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UNCTAD는 2006년부터 여러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MAST작업반(Multi-Agency Support Team)을 통하여 비관세조치를 표준화하여왔다.⁷⁾ MAST에 동참한 국제기구는 FAO, IMF, ITC, OECD, UNCTAD,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은행(World Bank), WTO 등이다. MAST작업반에서는 기술조치와 비기술적 조치 두 개의 관점에서 수입조치를 15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수량제한조치, 금융통제조치 및 가격통제조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인 조치이며, 각국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핵심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5>는 WTO I-TIP데이터의 비관세조치 분류와 MAST 작업반에 의한 비관세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비관세장벽을 구분한 것이다.⁸⁾ 비관세조치는 다양하나 크게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 또는 규제적 조치(regulatory measures)로 분류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와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선적전 검사와 비기술적 조치로 구분된다.

<표 5> 비관세조치의 분류

WTO I-TIP		MAST classification	
기술적 조치	위생검역조치 (SPS) 무역기술장벽 (TBT)	기술적 조치	위생검역조치 (SPS) 무역기술장벽 (TBT) 선적 전 검사와 기타요건
무역방어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 기술적 조치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치 가격제한조치 금융조치 반독점조치
농업협정에서 파생된 비관세조치	특별수입제한 관세할당 수출보조금		

7) 김경필·반현정·한정훈, 한국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p. 22.

8)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세별,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21.

WTO I-TIP		MAST classification	
기타	수량제한 수입허가 국영기업		무역 관련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수출보조 제외)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 자료 : UNCTAD(2012), WTO(2014),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세별(2015) 참조.

3. 농업부문과 비관세장벽

농업부문의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병충해나 식문화의 차이로 인한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다. 농식품의 경우 위생검역조치(SPS)로 인해 수출 대상국별 자국 기준에 맞는 수입위험분석 절차(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되는데 이러한 분석절차에 평균 7~8년 이상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WTO의 2014년도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에 따르면, 소규모 경제 국가들이 비관세장벽에 의해 특정 생산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로 농산물이나 식품 등과 같은 분야에서 SPS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부문 관련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기술조치 중 검사·검역이 있고, 비기술조치 중에는 원산지, 통관 및 수입허가 및 식품 표시 인증 및 수입허가 등록제도 등이 있다.

UNCTAD(2016)은 비관세장벽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조치(SPS)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표 6>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표 6> SPS와 TBT 유형

구분	조치의 목적	보호 내용
SPS	인간	첨가물, 독소, 오염물질, 식품이나 음료 내 질병 유발하는 유기체, 동식물을 통한 질병
	동물	첨가물, 독소, 오염물질, 사료나 음료 내 질병 유발하는 유기체, 질병, 질병유발 혹은 유기체를 통한 질병
	식물	해충, 질병, 유기체를 통한 질병
	국가	해충(해충의 진입, 확산 등)

구분	조치의 목적	보호 내용
TBT	인간/건강	노동위생 위협의 감소, 알레르기, 사고로 인한 부상, 전기를 통한 감전
	환경	멸종위기, 방출 허용 수준
	소비자	소비자 기만적 관행
	기타	품질, 국가 안보

* 자료 : UNCTAD, *Guidelines to collect data on official Non-tariff Measures*, 2016, p. 17.

검사·검역분야에서 식품 검역 및 대상국 식품 관련 법규 문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 체결을 통해 수출 확대를 모색해왔으나 실제로 FTA 체결 상대국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협정당사자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나 동일 품목이라도 FTA 체결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통관 및 수입허가의 경우, 통관이 지연되어 상품가치가 하락되거나,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 국가나 항구별로 표기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상이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할랄마크 등 식품 관련 인증,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번호등록(ML) 제도 문제, 육가공품의 정부 간 위생협정 체결 확대 문제 등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수입 관세 이외의 증치세 추가 부과, 브라질의 공업세·유통세·사회기여세 등의 문제,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가공식품 표절품 판매의 문제, 남미에서의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유사품 생산 및 판매 등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⁹⁾

비관세장벽이 농산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 이탁, 윤기관(2014)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에서 TBT가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농산물보다는 특정 농산물의 품목에 있어 TBT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왕봉안, 최창환(2013)의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산 제품 및 농산물에 대하여 취한 TBT 조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가 클수록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TBT 통보문 건수가 많을수록 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김경필·반현정·한정훈, 전게서, p. 24.

IV. 농업분야 비관세장벽과 가치사슬

1. 가치사슬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따른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시스템으로 정의된다¹⁰⁾. 일반적으로 가치사슬은 기업의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며, 본원적 활동은 물류투입, 운영생산, 물류산출, 서비스의 단계를 거쳐 제품 및 서비스의 물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원활동은 기업인프라,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구매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본원적 활동에 필요한 관련 투입물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창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 편, 가치사슬은 공급사슬(supply chain)과 분배사슬(distribution chain)로 구분되는데, 공급사슬은 하청 및 공급업자 등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 관련된 전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한편 분배사슬은 생산시점의 하류부문(downstream)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과정을 의미한다. 가치사슬모델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비용우위 및 차별화와 같은 기업의 경쟁전략 구축을 위한 분석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기업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최종시장의 중개자인 전문 수입업자를 통해 연계되는 경우로 현지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업가치사슬상의 판매부분에 해당한다¹¹⁾. 이러한 사슬에서는 주로 최종소매업자, 최종소비국의 전문 수입업자 혹은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품을 제공받는 다국적기업, 현지소비자와 수출대행업자, 현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원자재를 조달받는 대형생산회사 등이 글로벌가치사슬을 지배하고 있다¹²⁾.

10) Porter, M. 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Y: Free Press, 1985.

11) Humphrey, J. and Schmitz, H. "Governance in Global Value Chains", *IDS Bulletin*, vol. 32.3., 2001, p. 3.

12) 김주권,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 4.

Strugeon and Linden(2011)은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의 경영전략이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확대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ICT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과 운송 시설의 발달로 중소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며, 하청공급업자로 참여할 경우 개별 중소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술 및 경영방식의 혁신 학습은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¹³⁾. 반대로, 이러한 사슬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은 해당 가치사슬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게임의 법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농업분야 비관세장벽과 가치사슬

농산물은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품목별 특성 등 고려요인이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치사슬의 본원적 활동은 종자·육묘단계, 생산단계, 선별·가공·포장단계, 유통단계, 판매(내수 및 수출)단계, 최종 소비단계로 구성된다.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가치사슬현황이나 개선방안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이 가치사슬의 가치창출효과나 경쟁력강화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수출단계까지 고려한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연중·박기환·서대석·한혜성(2010)의 연구에서 쌀, 버섯, 방울토마토 등 주요 작물에 대해 가치사슬활동의 현황과 문제점과 단계별 활동별 연계성 강화를 통한 가치창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2008)는 우리나라 농업 주요 25개 품목들을 대상으로 가치사슬의 본원적 활동으로 생산가치사슬, 가공/유통 가치사슬, 판매/수출 가치사슬을 제시하고 생산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수출입단계별 비용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비용절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¹⁴⁾

김영훈 등(2016)의 연구에서는 복수국간의 Mega-FTA참여를 통한 글로벌가치사슬의 참여효과를 분석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의 참여를 타국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후방참여와 국내 중간재나 서비스가 타국 수출품

13) 김주권, 전게서, p. 107.

14)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25품목 생산유통 분석 및 대책, 2008.

에 투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전방참여로 구분하였고, 우리나라의 후방참여도가 RCEP 회원국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RCEP를 통한 글로벌가치사슬의 활용이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탁과 윤기관(2014)은 한국과 중국의 교역에서 TBT의 품목별 분석결과, 전체 농산물보다는 특정 농산물의 품목에 있어 TBT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박명현·오준석(2015)은 수산업분야에서 수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TBT와 SPS 통보문 주요 키워드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수산업 가치사슬 측면에서 경영 전략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 바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농식품에 대한 외국의 비관세장벽 및 조치에 대해 보고 사례는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 증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요 국가로는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 등이 있다.

<표 7> 한국 농식품 주요 수출 국가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석

구분	검역	통관	제도	라벨링	기타	총합계
중국	12	14	2	3	3	34
일본	3	5	3		4	15
미국	5	2	2		1	10
인도네시아	1	1	2		2	6
싱가포르	4		1			5
베트남	1		2			3

* 자료 : 김경필·반현정·한정훈,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p. 57.

중국은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총 28,097개 농산물(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SPS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SPS조치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TBT조치로 나타나고 있다. WITS에 따르면, 중국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직면한 NTM은 대부분 SPS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과도한 위생증명서 발급 및 검역 기준을 요구하거나, 열처리된 축산가공식품 수입을 규제하거나, 지역별로 통관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거나 담당자의 재량이 남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관세장벽 포털¹⁵⁾에 보고된 현재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

사례는 김치, 삼계탕, 생우유 등이 있다. 김치의 경우, 중국의 세척상 김치 품목에 대한 단독 세 번이 없어 절임류 총칭인 파오차이에 포함되어 검역 규정상 미생물 기준치가 100g당 30마리로 제한되어 수입 통관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2003.12월 한국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가금육 및 관련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여 삼계탕의 경우에도 열처리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제한되어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수출 신장세가 빠르던 우유의 경우에도 생우유 멸균제품 분류 움직임으로 검사 소요기간이 장기화(7일 이상)되면 사실상 한국 생우유제품은 유통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그 밖에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시 통관(위생증 수령 포함)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관세할당, 내국세, 허가제 민감 품목의 수입금지, 국영무역, 기술 규제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조치는 TBT조치이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유통을 위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검역 기준 운영 부적절성 등이 비관세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검역 및 통관 관련 비관세장벽이 70% 가까운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제도 및 라벨링에 대한 경우도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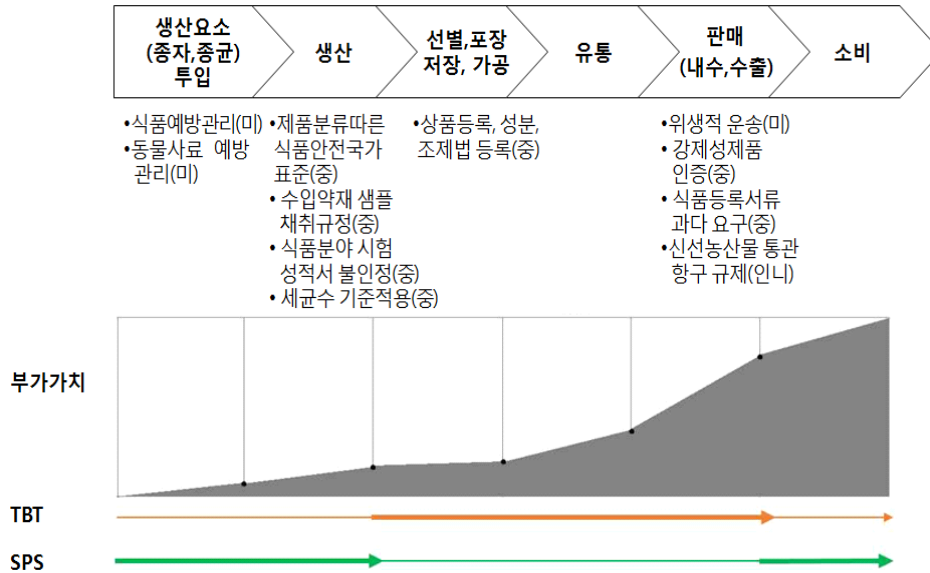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 강화, 광물자원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 강화 등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2년 6월에는, 과일, 채소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항구를 여덟 개에서 네 개로 축소하여 우리나라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Tanjung Priok항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신고배’만 가능),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협정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림 1>은 농업 가치사슬과 더불어 각 단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창출의 정도와 앞서 살펴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 관계되어 TBT와 SPS가 각 단계별로 어느 부분에서 주요한 통보문 키워드가 집중되어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어느 가치사슬 단계에 해당하며, TBT와 SPS 통보문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쟁점사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5) 비관세장벽포탈(NTB) www.ntb-portal.or.kr, 2017.07.25 최종 방문.

16) 김정필·반현정·한정훈, 전게서, p. 63.

<그림 1> 농산물 가치사슬과 비관세장벽(TBT, SPS) 주요 분포



* 자료 : 저자 작성

V. 결 언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시장다각화 및 농촌부문의 소득증대 뿐 아니라, 농업 분야의 품질기준과 경쟁우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부문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국이 SPS, TBT와 같은 비관세장벽들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FTA 체결은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 등 글로벌경영전략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FTA는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업분야 수출기업들이 농업분야의 글로벌가치사슬의 구조를 이

해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리 인식하고 해결해야할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TBT와 SPS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관세장벽포탈에 보고된 농산물 주요교역국들의 비관세조치는 SPS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SPS조치 다음으로는 TBT 조치이다.

가치사슬상 생산요소(종자, 종균) 투입에 해당하는 비관세조치들은 주로 SPS조치로서 미국의 식품예방관리와 동물사료 예방관리 조치 등이 있었으며, 가치사슬상 생산부문에 해당되는 비관세조치들로는 주로 중국의 SPS 조치들로서 제품분류에 따른 식품안전국가 표준의 임의적인 적용, 수입약재 샘플 채취규정의 강화, 한 국내 식품분야 시험 성적서를 불인정하거나, 세균 수 기준을 임의로 제품분류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선별포장, 저장, 가공 과정에서는 중국의 TBT조치로서 상품등록, 성분, 조제법의 중국내 등록 등의 비관세조치가 해당되었다. TBT조치는 유통 및 수출단계에서 위생적 운송 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한다거나, 중국의 강제적인 제품 인증, 식품등록서류의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해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이로 인한 금융비용의 과다발생으로 수입을 방해하는 조치 등이 발견되었다. 인도네시아도 신선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규제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교역국들의 식품 안전 강화를 통한 기술규제, 까다로운 위생검역수준요구 등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식품을 그대로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사의 위치가 글로벌가치사슬상에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잘 이해하고, 수입국의 비관세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비관세장벽의 경우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등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비관세장벽포탈이나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의 비관세장벽 메뉴를 통하여 수출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기업들의 이용실적은 그리 높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나 농업부문 수출업체들에게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많다.

또한, 국내농가 및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글로벌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크다. 잠재적인 수출기업인 국내 농가 및 수출유망기업들이 해외진출초기부터 TBT나 SPS와 비관세장벽요인을 잘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수출유관기관이나 해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글로벌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팜과 같이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창업초부터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농업부문 글로벌스타트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분야의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 농산물 수출의 증대를 위한 글로벌가치사슬에의 효과적인 연계 및 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비관세장벽을 농업부문 가치사슬단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품목별로, 국가별로 비관세장벽의 빈도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수출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에 진입 또는 연계되는 데 있어서 경영전략이나 정부의 지원정책에 갖는 시사점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농산물수출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진입에 영향미치는 비관세장벽의 유형분석과 그에 맞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정부기관의 수출지원정책의 제시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필·반현정·한정훈,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김연중·박기환·서대석·한혜성,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김영훈·어명근·이상현·조성주·정대회·안수정·오새라,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김주권,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25품목 생산유통 분석 및 대책, 2008.
- _____, 대중국 농식품 비관세장벽 사례조사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2016.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농림수산식품수출입 동향 및 통계, 각 년도.
- 박명섭·한낙현·김은채,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16.
- 박명현·오준석, “비관세장벽으로의 TBT·SPS와 경영전략 연구: 수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
- 서진교·이효영·박지현·이준원·김도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송주호·최지현·정대회·박한울·김성훈,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이상현·조성주·정대회·안수정·오새라,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임정빈·안동환,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010.
- 조성제,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발전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새별.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FAO·UNIDO, *Agro-industries for Development*, Rome, 2009.

Humphrey, J. and Schmitz, H. "Governance in Global Value Chains", *IDS Bulletin*, vol. 32.3., 2001.

OECD,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2013.

Porter, M. 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Y: Free Press, 1985.

UNIDO, *Agro-Value Chain Analysis and Development: The UNIDO Approach*, Vienna,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gricultural Exports, Non-Tariff Barriers and Global Value Chain

Keun-Ho PARK

Recently, agricultural exports of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But, no progress is being made at the WTO and DDA negotiations, the FTA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countries have been cleverly utiliz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SPS and TBT,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aggressivel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TA has the potential to activate the global value chain, there is a high need for exporting companies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agriculture and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The non-tariff measur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field of domestic agricultural exports were mostly comprised of SPS measures and TBT measures. The non-tariff measures corresponding to inputs and production stages of value chain elements (seeds, seedlings) in the value chain were mainly reported in SPS measures. TBT measures are mainly carried out in selective packaging, storag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sales.

It is most important for agricultural export companies to know their position on the value chain and information on non-tariff measures of importing countrie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Since there are non-tariff barriers that are difficult to be solved at the individual enterprise level, active government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actively promoting relevant information to farmers and agricultural exporters.

In addition, potential export farmers and prospective export companies will be able to identify TBT and SPS and other non-tariff barriers well in advance, and respond to them in advance. Also, through networking with export related organizations and overseas buy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policy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 is linked effectively.

Keywords : Agricultural Exports, Non-Tariff Barriers and Global Value Chain